□■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2. 9. 11

#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Because of this reply, you may go

마가복음 7장 24-30절

---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

1. 한자 중에 수준이나 등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품(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격', '품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지요. '입 구(口)' 자를 세 개 쓰면, '품(品)자' 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 이 그 사람의 품성 또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2.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1)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26절)
   2)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25절)
   3) 예수님의 대답 (27절)

3. 그럼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말을 했나요? (28절)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또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4.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말' 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눠봅시다.